탄탄한 팬덤 갖춘 여성 그룹 세 팀의 귀환

12년 만에 정규 6집 발표…“반갑다, 빅마마”

빅마마, 10일 정규앨범 ‘본’ 출시
에이핑크, 14일 ‘호른’으로 컴백
여자친구 3인 ‘비비지’로 재데뷔







빅마마·비비지·에이핑크(위부터 시계방향) 등 여성 그룹들이 저마다 재결성해 가요계에 컴백한다. 사진제공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빅플래닛메이드·IST엔터테인먼트

짧게는 7년, 길게는 20여 년 이상 활동하며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여성 그룹들이 다시 뭉친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컴백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빅마마, 에이핑크, 비비지 등이 나란히 새 앨범을 내놓고 활동을 시작한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가수와 그룹들이 펼치는 ‘컴백 대전’에서도 유독 세 팀(그룹)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다시’ ‘재데뷔’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는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빅마마는 10일 여섯 번째 정규앨범 ‘본’(Born·本)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2010년 발표한 정규 5집 ‘5’ 이후 12년 만에 내놓는 신보이자, 특히 각기 소속사가 달랐던 멤버들이 9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며 빅마마의 근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앨범이다.

7일 소속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마마는 ‘태어나다’의 ‘본’(Born)과 ‘근본 본’(本)을 담은 앨범명에 맞게 자신들만이 가진 그룹 원초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싱글 ‘하루만 더’를 발표하며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빅마마에 이어 에이핑크가 돌아온다. 에이핑크는 14일 스페셜 앨범 ‘호른’(HORN)을 발표하고 각종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 ‘호른’은 2020년 4월 발표한 아홉 번째 미니음반 ‘룩’(LOOK)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신보다.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7일 “지난해 에이핑크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매하는 스페셜 앨범”이라며 “유명 글로벌 프로듀서 군단이 참여해 정규 앨범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할 것”이라며 밝혔다.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미스터 츄’(Mr.Chu), ‘노노노’(NoNoNo), ‘러브’(LUV)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이번 활동에서 지난해 4월 말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YG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손나은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참여하지 않는다. 앨범 재킷과 뮤직비디오는 앞서 촬영했다.

지난해 해체된 6인조 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엄지, 신비, 은하가 비비지로 재데뷔한다. 이들은 두 선배에 앞서 9일 데뷔 음반인 ‘빔 오브 프리즘’(Beam Of Prism)을 발표한다.

최근 세 멤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고 활동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7일 멤버 전원 완치되면서 9일 예정대로 데뷔하게 됐다.

비비지는 ‘비비드 데이지’(VIVId day Z)의 줄임말이자 ‘선명한, 강렬한’을 의미하는 ‘비비드’와 ‘나날들’을 의미하는 ‘데이지’(days)의 합성어로, 언제나 세상에 당당하게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데뷔앨범은 타이틀곡 ‘밥 밥!’(BOP BOP!)을 비롯해 ‘피에스타’(Fiesta), ‘러브 유 라이크’(Love You Like) 등 7곡이 담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빅뱅, 4년만의 신곡 예고…예전 위상 되찾을까

승리 탈퇴·탑 대마초 ‘따가운 시선’
신곡 내고 활동에 나설지는 미지수



빅뱅

그룹 빅뱅이 돌아온다.

빅뱅이 올봄 4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팬들과 만난다. 신곡은 현재 녹음까지 마쳤고, 뮤직비디오 촬영만 앞두고 있다. 최종 작업을 마치면 3월 말이나 4월 초 신곡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앨범은 정규나 미니앨범이 아닌 디지털 싱글 형식이다. 하지만 이들이 신곡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가요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수 많은 히트곡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랑받았다.

빅뱅이 신곡을 내는 것은 2018년 3월 싱글 ‘꽃 길’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2017년 탑을 시작으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차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냈다.

전 멤버 승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2019년 팀에서 탈퇴한 동시에 연예계에서도 은퇴했고,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다.

빅뱅이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지만, 음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멤버들이 각종 사건과 사고 등에 휘말리며 비난을 받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된 가요계 현실에서 대중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멤버 가운데 탑은 이번 신곡 참여를 끝으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다. 탑은 현재 1인 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7일 “탑이 개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서 “추후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 다양한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뱅 외에도 개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탑의 의견을 존중해 멤버들이 잘 협의했다”며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빅뱅 활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연예뉴스 HOT 3

SBS “시사특공대 진행자 교체 항의 때문 아냐”

SBS가 라디오프로그램 ‘시사특공대’ 진행자 교체 논란에 대해 “외부 항의로 인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SBS 라디오센터는 7일 “시사프로그램에서 모든 이슈를 다룰 때 최우선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해두고 있다”면서 “진행자 이재익 PD의 하차는 이 원칙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측의 항의가 있었으나 항의는 종종 있는 일이고, 이 때문에 이재익 PD가 하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이 PD는 SNS를 통해 ‘시사특공대’ 하차 사실을 알리며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배우 교체한 ‘결사곡3’ 강신효 지영산 이혜숙 합류



강신효·지영산·이혜숙

‘막장 대모’ 임성한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3의 배우들이 대거 변경된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1·2에 참여한 성훈, 이태곤, 김보연이 이번 시즌에서 하차한다. 세 사람이 연기해온 30대 남편 판사현, 40대 남편 신유신, 신유신의 새엄마 김동미 역은 각각 강신효, 지영산, 이혜숙이 맡는다. 이들은 “앞선 배우들이 보여준 캐릭터를 이어받아 색다른 매력을 잘 드러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드라마는 26일부터 방송한다.

영화 ‘특송’ VOD 시작 후 디지털 플랫폼 1위



배우 박소담(사진)이 주연한 액션영화 ‘특송’이 VOD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다. 7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특송’은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온라인 상영관 박스오피스 기준 IPTV 주요 채널인 KT올레TV, SK Btv, LG U+TV에서 1위에 올랐다. 디지털 플랫폼인 KT 시즌, 홈초이스 등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는 지난달 12일 개봉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